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몹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흉적은 목을 늘여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 |  |  | | **[A]** | | |  |  | |  |  |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 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삐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옵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좇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뵙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